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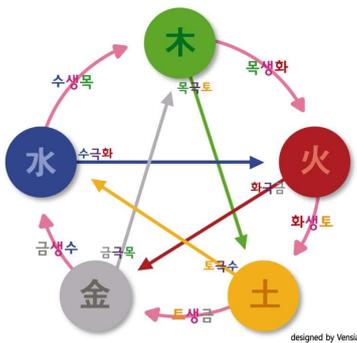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양오행은 중국 신진 시대에 따로 논의되던 두 사유 틀이 한 나라 무렵 하나로 통합되면서 의학과 천문·농사 전반에 쓰이는 보편적 언어가 되었다. 먼저 음(陰)·양(陽) 사상은 밤과 낮, 추위와 더위처럼 서로 반대이면서도 상대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두 힘을 통해 자연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이어 농경과 계절, 도공들의 경험인 나무(木)·불(火)·흙(土)·쇠(金)·물(水)이라는 다섯 작용으로 추려졌고, 이른바 오행이라 불렸다. 전국 시대의 학자 추연은 이 다섯 작용이 계절·방위·색·맛·정서까지 끌어안는 거대한 대응표를 마련했으며, 뒤이어 편찬된 의학서 『황제내경』은 오행을 간·심장·비장·폐·신장에 대응시키고 음양 이론을 결합하여 인체를 작은 우주처럼 파악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두 숫자, 곧 2와 5가 만드는 단순한 조합은 배우기 쉽게 응용이 자유로웠기에, 음양오행은 이후 동아시아 의학과 점복, 예절 체계 전반의 공통 기초가 되었다.

[A] 우리의 몸에서 음(陰)은 체액·혈액·휴식으로, 양(陽)은 열·활동·기운으로 파악하면 두 힘의 균형을 생명의 첫 조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어 나무의 기운을 뜻하는 목(木)은 “굽고 퍼져 사방으로 뻗는 힘”으로, 불의 기운인 화(火)는 “위로 솟아 밝히고 데우는 힘”으로, 흙의 기운인 토(土)는 “만물을 받아 품고 길러 내는 가운데 자리”로, 쇠의 기운인 금(金)은 “맑고 서늘하게 거두어 내리고 정화하는 힘”으로, 물의 기운인 수(水)는 “차갑게 가라앉아 깊이 저장하고 윤택을 주는 힘”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목화토금수는 성장·온열·소화·정화·저장의 다섯 축을 이루고, 목이 화를 돕고, 화가 토를 만들어 금과 수를 거쳐 다시 목으로 ㉠ 돌아가는 상생 고리, 그리고 목이 토를 절제하고 토가 수를 막아 수·화·금·목을 차례로 제어하는 상극 고리를 통해 하루의 맥박과 사계절 변화에 맞춰 몸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오행의 상생 상극



건강한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리학이라면, 질병의 발병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병리학이다. 한의병리학은 음·양의 기울어짐과 오행 고리의 교란을 질병의 뿌리로 ㉡ 본다. 한의사는 맥과 혀, 얼굴빛, 생활 습관 등을 근거로 어느 힘이 ㉢ 모자라고 어느 힘이 넘치는지 짚은 뒤, 모자란 쪽은 따뜻한 약재나 보익식으로 복돋우고, 넘치는 쪽은 시원한 약재나 침·뜸으로 억제하며, 약해진 상생 흐름은 돕고 뒤집힌 상극 관계는 다시 세우는 식으로 균형을 복원한다.

(나)

좌간우폐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소문·자금론』의 “간은 왼쪽에서 생하고 폐는 오른쪽에서 갈무리된다”는 구절이다. 간은 해부학적으로 오른쪽에 있는데 왜 왼쪽에서 생한다고 하였고, 폐는 좌우에 2개가 있는데 왜 오른쪽에서 갈무리된다고 하였는가? 이는 좌간우폐설이 간과 폐의 기운(氣)이 운행하고 작용하는 위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개빈은 간이 목(木)·봄·소양(少陽)에 속해 만물을 돋우는 발생의 기운을 담당하므로 왼쪽에서 기가 첫 걸음을 내디딘다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폐는 금(金)·가을·소음(少陰)에 속해 만물을 거두는 수렴의 기운을 담당하므로 오른쪽에서 기가 갈무리된다고 풀이했다. 『소문·금계진언론』과 『영추·구침십이원』이 제시한 사상 분류에서도 간은 ‘음(陰) 가운데의 소양(少陽)’, 폐는 ‘양(陽) 가운데의 소음(少陰)’에 배당되어 각각 상승·발산과 하강·수렴의 상징적 축이 된다.

간과 폐를 각각 동서로 배치하는 근거는 동방-목-발생과 서방-금-수렴이라는 오행과 방위의 대응 뿐 아니라, 천지 기운의 회전 패턴에도 있다. ㉣ 고대 우주론은 지기·수기가 좌회전하며 상승하고, 천기·화기가 우회전하며 하강한다고 보았다.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주를 담은 인체는 이 대순환을 축소해 좌측에서 상승하는 간의 목기와 우측에서 하강하는 폐의 금기로 구현한다. 장개빈은 “간목은 동방에서 왕성하므로 기가 좌측에서 일어나고, 폐금은 서방에서 왕성하므로 기가 우측에서 갈무리된다.”고 요약하였다. 장석순은 이를 임상적으로 활용해 좌관맥(左關脈)이 허(虛)할 때 보간약을 투여해 맥을 회복시키고, 우관맥(右關脈)이 허(虛)할 때 비위(脾胃)를 보(補)한다고 하였다. 그는 간이 해부학적으로는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기화가 먼저 왼쪽에서 일어나므로 간맥은 좌측 관부에서 짚어야 하고, 비장은 왼쪽에 있어도 기화가 오른쪽에서 일어나므로 비맥은 우측 관부에서 살핀다는 점을 ‘음양이 서로 뿌리가 되고 강유가 뒤섞이는 오묘한 이치’로 ㉤ 말하였다.

또한 인체의 기화 과정을 대우주의 하루·한 해 기화에 견주면, 봄과 아침 해돋이는 동쪽에서 시작되므로 목기 계통인 간의 작용이 먼저 드러난다는 점이 뒷받침된다. 간의 좌측 기화는 임상에서 좌맥이 미약할 때 간을 보하는 치료가 즉각 효과를 보이는 경험적 근거가 되어 왔다. 반대로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빛이 동쪽을 비추듯, 폐 또한 그 수렴과 갈무리 기능은 우측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 나타낸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철학적 방법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 철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연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철학적 방법의 일반적 적용을 논하고 있다.
- ④ (나)는 특정 철학적 방법을 근거로 인체 장부를 분류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더 넓은 범위를 설명 대상으로 한다.

5.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표는 자연계의 오행귀류를 나타낸 것이다.

오행	장부	계절	방위	색	맛	정서
목(木)	간(肝)	봄	동쪽	푸른색	신맛	분노
화(火)	심(心)	여름	남쪽	붉은색	쓴맛	기쁨
토(土)	비(脾)	늦여름	중앙	노란색	단맛	걱정
금(金)	폐(肺)	가을	서쪽	흰색	매운맛	슬픔
수(水)	신(腎)	겨울	북쪽	검은색	짠맛	두려움

- ① 황련(黃連)은 여름철 붉은 혀나 쓸개즙 같은 쓴맛의 열증에 쓰이며 심(心)-화(火)의 과열을 꺼뜨리는데, 이는 쇠(金)가 불(火)을 억제하는 '금극화' 관계의 사례이다.
- ② 연근(練根)은 흰빛을 띄며 매운맛이 돌아 가을철에 폐(肺)-금(金)을 돕고, 피를 식혀 지혈과 정화를 이루는데, 이는 금(金)이 물(水)을 길러 신(腎)을 보하는 '금생수' 관계의 사례이다.
- ③ 건강(乾薑)은 "짠맛과 검은빛"이 강하여 겨울에 신(腎)-수(水)를 보하여 두려움과 기력 저하를 개선하는데, 이는 불(火)이 물(水)을 도와 저장 기능을 높이는 '화생수' 관계의 사례이다.
- ④ 국화(菊花)는 노란빛과 단맛의 성향이 뚜렷해 늦여름 비(脾)-토(土)의 운화를 강화하고 걱정으로 인한 소화 장애를 완화하는데, 이는 토(土)가 쇠(金)를 길러 폐 기운을 돕는 '토생금' 관계의 사례이다.
- ⑤ 시호(柴胡)는 푸른빛과 신맛이 도는 약재로 봄철에 간(肝)-목(木)을 소통시켜 가슴의 답답함과 분노를 풀어 주는데, 이는 나무(木)가 불(火)을 길러 심장-화(火)의 혈액 순환을 돕는 '목생화' 관계의 사례이다.

6. ㉠와 같은 종류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나는 진술은?

- ① 선풍기를 들고 자다가 사망한 사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풍기로 인해 사망했다.
- ② 동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지구에서 태어난 생명체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과 인간은 똑같이 취급되고 동등하게 여겨져야 한다.
- ③ 베트남과 칠레는 지형이 남북으로 길쭉하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베트남 사람과 칠레 사람은 서로 비슷한 생활 양식을 공유할 것이다.
- ④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민서의 집은 도서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민서는 공부를 잘하고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 ⑤ 남성의 여성 차별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하지만 여성의 남성 차별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 동안 남성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차별을 당해왔기 때문이다.

7.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문 자금론』에 따르면, 열이 간에 있을 때는 왼쪽 볼이 먼저 붉어지고, 열이 폐에 있을 때는 오른쪽 볼이 먼저 붉어진다. 장개빈은 이를 “간은 목오행에 속해 동쪽에서 기운이 생발하므로 왼쪽 볼이 먼저 붉어지고, 폐는 금오행에 속해 서쪽에서 기운이 수렴하므로 오른쪽 볼이 먼저 붉는다”고 설명하였다.

A씨는 왼쪽 팔·다리 통증과 함께 왼쪽 볼이 붉게 비쳤으나 맥·설 진찰에서는 열감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한의사는 간 기운이 왼쪽에서 충분히 생발하지 못해 그에 수반된 열기가 왼팔 경락에 울체된 것으로 진단하고, 기운을 보충하고 울체를 풀어주는 처방을 시행하였다.

- ① A씨의 왼쪽 볼 발적은 간 기운의 결핍에 따른 것이다.
- ② 간 기운 결핍이 좌측 경락에 열기를 일으킨 것은 간이 왼쪽에서 생발하기 때문이다.
- ③ 맥과 설의 열감이 없다는 사실은 간 목기의 생발 부족을 확인하는 보조 근거가 된다.
- ④ 기운 보충과 울체 해소를 위해 목오행 약재를 사용한 것은 오행간 상생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 ⑤ 간 목기가 왼쪽에서 생발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볼이 붉어졌다면 폐 금기의 과잉을 의심할 수 있다.

8.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국시대의 학자 추연은 오행론을 통해 자연을 설명하려 한 최초의 학자였다.
- ② 『황제내경』은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 퍼져 있던 음양과 오행의 개념을 수용하였다.
- ③ 따뜻한 성질의 약재는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차가운 성질의 약재는 기운을 덜어내 줄 수 있다.
- ④ 『소문·자금론』 편찬 당시의 의학자들은 해부학적으로 간은 왼쪽에, 폐는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했다.
- ⑤ 간기는 맑고 서늘하게 거두어 내리고 정화하는 작용을 하고, 폐기는 굵고 퍼며 사방으로 뻗으려는 작용을 한다.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회복(回復)되는
- ② ㉡: 지명(指名)한다
- ③ ㉢: 결핍(缺乏)되고
- ④ ㉣: 추정(推定)했다
- ⑤ ㉤: 시사(示唆)한다

